▶ '무주 산골영화제' 개막식

'4박 5일 동안의 시네마 소풍' 열기 뜨겁다

가수 한영애의 무대와 함께 축제에 대한 설렘 키워내

개막작 '레게 이나 필름, 흥부' 애니메이션 '흥부와 놀부' 에 레게와 판소리 결합 재해석

지난 2일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개막작 '레게 이나 필름, 흥부'의 상영과 더불어, 8인조 레게 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가 흥겨운 연주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일에 막을 올린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 열기가 뜨겁다.

2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된 개막식은 영화배우 박철민씨와 김혜나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무주산골영화제 황정수 조직위원장(무주군수)과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부산기장군 오규석 군수,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백경태 전북도의회 의원, 전주MBC 원만식 대표 등 내빈들과 김태용 감독, 임필성 감독, 양익준 감독, 박석영 감독, 한국영상자료원 류재립 원장,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이사장, 전주영화도서관 민병록 관장 등 영화관계자들과 일반 관람객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페스티벌 프렌즈 류현경 씨를 비롯한 영화배우 조재현 씨(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 김기천 씨, 이이경 씨, 정하담 씨 등이 자연 속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라는 의미를 강조한 그린카펫을 밟으며 무주산골영화제를 빛냈다.

이어 진행된 개막공연에서는 반디수화합창단이 아름다운 손짓으로 사랑을 노래해 호응을 얻었으며 가수 한영애의 힘찬 무대가 무주에서의 영화소풍에 대한 설렘을 키웠다.

"밤하늘을 지붕삼고 별빛, 달빛, 풀벌레 소리를 벗 삼아 떠나는 영화소풍을 시작한다"는 황정수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시작된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은 김태용 감독('만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청춘의 십자로', 제4회 개막작 '2016, 판소리 춘향뎐' 등)이 총 연출한 〈레게 이나 필름, 흥부〉가 상영됐다.

'레게 이나 필름, 흥부'는 1967년 강태웅 감독이 연출한 한국 최초의 스톱모션 인형 애니메이션 〈흥부와 놀부〉에 레게음악을 중심으로 판소리를 결합해 재해석한 레게 음악극으로, 웹 드라마 〈출출한 여자 시즌2 - 2016〉과 다큐멘터리〈마리안느와 마가렛 - 2017〉을 연출한 윤세영 감독이 공동연출과 무대감독을 맡았다. 더불어 8인조 레게 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가 연주와 음악 연출을 담당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 찬사를 받았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일까지 무주읍 예체문화관(대공연장, 산골영화관)과 등나무운동장, 전통문화의 집, 무주읍 서면마을, 안성면 두문마을,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창'(경쟁부문 뉴비전상(대상) 상금 1000만원, 전북영화비평포럼상 상금 300만원, 무주관객상 상금 200만원), 판(전 세계 명작영화), 락(공연과 함께 즐기는 국내외 영화), 숲(캠핑과 함께 하는 숲 속 영화관), 길(마을영화관)' 섹션을 통해 30개국에서 초청한 72여 편의 영화와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창' 섹션의 뉴비전상 수상작편은 6일에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5일 저녁 7시 등나무운동장에서는 주민과 관광들을 위한 어울림콘서트가 개최되며 가수 조항조 와 박주희, 레이디티, 정해진, 이소율 등이 함께 해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의 흥을 돋우게 된다.

특별한 관람 원칙없이 무료로 편안하게 즐겨볼 수 있는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관련 정보들은 홈페이지(www.mjff.or.kr)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나라 공예소재 표준화 구축

전통문화전당 프로젝트,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모 선정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대한민국 공예소재의 표준화를 만들게 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전통공예 소재의 물성지표 발굴 및 측정방법 연구' 프로젝트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주관연구기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과제는 전통 공예 소재의 보존과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재의 물성지표와 그 측정 기술을 개발해 전통공예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당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전당은 이번 사업의 추진을 통해 700여 개 전통공예 소재 물성을 분석, 이에 맞는 분석 측정방법을 표준화한다. 이와 함께 용도별 물성지표를 파악하는 일명 '머터리얼맵(Material Map)'을 확보하고, 우수공예품 100개를 선정해 소재구성 분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공예품과 공예소재 연계 매트릭스 구성, 공예소재의 물성지표 발굴, 공예소재(원천소재·응용소재)의 특성 및 범위 정의, 제품별(도자·금속 등) 평가방법의 조사(국내외 지표 표준화 사례 분석), 전통공예 소재별 물성지표 적용 등의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전당은 이번 전통공예 소재의 물성지표 및 측정방법 연구를 통해 공예 소재별, 용도별 활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리적 지표 표준화로 공예소재의 우수성을 검증 내지 산업소재로서의 영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화학적 지표 개발로 위해성을 방지, 작업 안정성과 제품의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어 궁극적으로 공예 산업 활성화에 많은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해은 기자

익산문화재단, 17일까지 춘포길 답사 참가자 모집

(재)익산문화재단은 근대문화유산 박물관 춘포사업의 '춘포길 따라 오감 즐감 Go! Go! Go!' 참가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답사는 일제 강점기(1914) 시대에 식량수탈을 위해 만들어졌던 춘포(대장)역 및 춘포일대의 근대문화유산 등 2.7Km 달하는 주요 역사 현장을 돌아볼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로 만나는 춘포 역사유적 답사 외에도 역사 바로 알기 퀴즈쇼, 퍼포먼스 댄스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신청은 이메일(je3609@iscf.or.kr), 팩스(063-843-9912), 방문접수(익산시 평동로 1길 28-4)를 통해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 공연 전시 ◀◀

'칠 접선과 합죽선, 그리고 소통' 전주부채문화관, 엄재수 선자장 초대전

(사)문화연구창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향미)은 부채문화주간을 맞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선자장 엄재수의 '칠 접선과 합죽선, 그리고 소통' 특별기획전을 마련한다.

엄 선자장은 이번 전시에서 일제 강점기 이후 사라진 '칠 접선'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신작을 선보인다.

부채는 형태상 둥근 모양에 손잡이가 달린 단선(방구 부채)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선(접부채)으로 나뉘는데, 합죽선은 대나무 껍질만 남기고 얇게 깎아 두 개를 겹쳐 부챗살을 만들고 겉대를 치장하는 부채로 접선에 속한다. 부챗살이 한 겹인 칠 접선은 합죽선과 같은 형태를 가지지만 부챗살에 옻칠을 한다.

그는 부채의 현대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품작업을 했다. 겨울에도 부채의 손맛을 느끼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손노리개용 부채와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색상의 옻칠을 시도했으며, 겉대의 치장 또한 대모·우각·어피·반죽·대껍질·분죽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엄재수 선자장은 "이번 전시는 장인과 사용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물로 칠 접선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접부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소년시절부터 부친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故 엄주원 선생과 함께 합죽선 작업에 참여한 그는 2012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선자장으로 지정됐다. 일제 강점기 이전의 부채 기법을 연구, 유물과 기록으로만 남아 있던 부채를 재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전주한옥마을 내에 미선공예사와 부채박물관을 운영 중 이다.

전시는 무료로 오는 14일까지 전주부채문화관 지선실에서 열린다. 월요일 휴관.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